

보성에 신소재 車부품 단지

〈마그네슘〉

내년말까지 90억 투입 시험생산동 준공

2015년께 1천명 고용·5천억 생산 효과

차량의 무게를 줄여 연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미래 신소재사업인 마그네슘 자동차 부품공장 단지가 보성에 들어선다.

차세대 성장산업의 하나로 마그네슘 부품 산업을 육성,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보성군, 전남테크노파크 등은 25일 “지역 내 부품제조산업 특화단지 조성 사업의 하나로 보성군 조성면 농공단지에 ‘마그네슘 자동차 부품가공사업화 지원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그네슘은 무게가 철강재(4배), 알루미늄(1.5배)보다 가벼워 기존 철강재나 알루미늄으로 이뤄진 자동차 부품을 마그네슘으로 대체할 경우 차량 무게를 줄여 연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성장 동력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알루미늄으로 이뤄진 자동

차휠(wheel)을 마그네슘으로 교체할 경우 차량 무게만 26kg이 줄어들고 철제 자동차 시트 프레임(seat frame)을 마그네슘으로 대체할 경우 차량 무게가 28kg 줄어드는 등 마그네슘 대체에 따른 전체 차량 무게만 300kg이 감량된다.

“마그네슘 자동차 부품가공사업화 지원시설”은 부지면적 9천917㎡에 건축면적 4천958㎡ 규모로 국비와 도·군비 등 총 89억5천만원이 투입돼 내년 12월께 완공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마그네슘 사업 관련기관들이 아직 보유하지 못한 열 충격시험기와 CT 촬영기, 고온비틀림시험기 등 소재분석을 위한 시험분석장비와 정밀가공기, 레이저가공기 등 마그네슘 관제를 활용한 자동차 부품가공 시험생산장비를 갖춰 관련 입주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테크노파크의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가 이들 시설을 운영하며 농공단지 안에는 마그네슘 자동차

부품제조 기술을 이미 개발한 기업과 시험생산동을 통해 관련기술을 확보한 기업 등이 입주해 이들 시설을 활용하게 된다.

전남도와 보성군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마그네슘 소재기술을 확보한 기업 10여곳을 유치하고 관련 부품기업 30곳도 농공단지나 보성일반산업단지 등에 입주시켜 단지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함께 마그네슘 부품 지원시설 구축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6월 말까지 입주기업을 선정해 연말에 착공, 내년 6월말 준공하기로 했다.

보성군은 마그네슘 자동차 부품제조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따라 2015년까지 1천여명의 고용효과와 5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중태 보성군수는 “지원시설이 확보될 마그네슘 관련 고가 신장비들을 이용, 자동차 응용부품을 개발해 전남지역은 물론 국가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부품제조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후기자 dok2000@kwangju.co.kr

/보성=선상근기자 sun@



꽃보다 화사하게 ‘찰칵’ 25일 서울 태평로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올림푸스 디지털카메라 신제품 출시회에서 모델들이 인물사진을 뚜렷하고 맑게 보정해 꽃보다 화사하게 촬영할 수 있는 ‘뷰티모드’ 및 ‘아트필드’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KT-KTF 합병

공정위, 조건없이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유선전화 1위 업체인 KT와 이동전화 2위 업체인 KTF의 합병을 조건 없이 승인했다. 이에 따라 KT와 KTF가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최종 인가를 받으면 연간 매출액 19조 원(작년 추정치, 총자산 23조6천억 원, 직원 수 3만8천여 명의 거대 통신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공정위는 25일 두 회사가 합병해도 통신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조건을 달지 않고 허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의 쟁점 가운데 KT가 선로와 통신주 등 유선통신시장의 필수 설비를 독점하는 문제는 KTF와의 합병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다만 경쟁업체의 필수 설비 이용을 거절할 경우 방통위와 공정위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유·무선 결합 상품을 판매할 경우 가격 인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할 때는 현행법상 사후 규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KT는 최근 일각에서 불거지는 주가하락에 따른 합병위험과 관련, 5천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기로 했다.

또 합병을 하더라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한편 성과연동형 보수체계 도입 등을 통해 5년간 5천억 원의 인적 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조선사 RG 선수금 입금분만 채권 포함”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조선사에 제공한 선수금 환급보증(RG) 보증 가운데 선수금이 이미 입금돼 확정된 금액만 채권액에 포함하기로 했다.

조정위는 25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조선사의 주채권 은행인 국민은행이 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RG 보험 처리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RG 보험은 선주로부터 계약금액 일부는 선수금으로 받은 조선사가 선박을 만들지 못해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에서 선수금을 대신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보험사가 지급 보증을 선다. /연합뉴스

보험 약관설명 ‘대충 대충’

작년 광주·전남 금융민원 중 보험관련 1,226건

은행들도 서민 신규 대출·대출 연장 거부 많아

광주·전남지역 금융 민원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민원인들은 보험설계사들의 상품에 대한 설명과 약관의 주지 의무 미이행 등에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은행 등 금융기관 민원에서는 신규대출 및 대출연장 거부 등 대출관련 민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5일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전주·제주출장소 포함)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금융민원은 모두 1만1천775건으로, 2007년에 비해 1천130건(10.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체 인터넷·팩스·우편 등 서류민원 처리결과를 토대로 볼

때 보험민원이 1천226건(54.2%)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카드사, 신용정보사, 저축은행, 신탁 등 비은행권 민원은 647건(28.6%), 은행민원은 378건(16.7%)에 달했다.

1년 전에 비해 보험민원과 은행민원은 각각 27.8%(267건), 67.3%(152건) 증가한 반면, 비은행 민원은 18.1%(143건)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보험민원의 경우 상품 설명 오류를 비롯해 청약서 자필 서명, 약관 주요 내용 설명, 청약서 부분 교부 등 이른바 ‘3대 기본자키기’를 어긴 것과 관련,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721건(58.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이는 상품 가입과 관련해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 등 금융기관 민원에서는 신규대출과 대출연장 거부, 채무감면 요청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 관련 민원이 470건(45.9%)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침체로 채무자의 대출 상환능력이 악화되면서 대출 관련 민원은 지난해보다 20.2%(79건)나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광주지원 김복선 팀장은 “주가 폭락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과 계속되는 경기침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등 민원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만큼 지역 주요 내용 설명, 청약서 부분 모니터링과 소비자 교육 등을 통해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변호사 비용도 소득공제

내달 1~16일까지 신고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거래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3월 1~16일 인터넷이나 우편 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15개 전문직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거래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KT&G 새 담배 ‘스프링 시즌’

KT&G는 감성브랜드 ‘시즌’의 봄 한정판 ‘스프링 시즌’을 다음달 2일 발매, 한달간 한정 판매한다. 스프링 시즌은 흡연시 부담감과 자극이 적고, 담배 고유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다는 특징을 자랑한다. 타르 2mg, 니코틴 0.2mg을 함유했다. 갑담 2천500원.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쏘렌토 후속 모델 공개

기아차는 오는 4월 출시 예정인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신차인 쏘렌토 후속 모델 XM(프로젝트명)의 디자인을 25일 공개했다. 강인하고 스포티한 앞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일체화된 헤드램프, 로체 이노베이션과 포터에 패밀리룩으로 적용된 라디에이터 그릴을 채용했다. (기아차 제공)

“中企 업종간 교류 활성화 올인”

김우연 광주·전남 이업종교류 회장

“업종이 서로 다른 중소기업들이 각자 보유한 경영정보와 노하우를 교환해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교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임 김우연(63) (사)한국중소기업이업종교류회 광주전남연합회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교류 차원을 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정책적 배려,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더

욱 왕성한 교류 촉진 사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주)무등 상장으로 과학기술진흥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고 ‘자랑스러운 전남대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SAFA
조이케질 SF-01
“언제 어디서든 조이케질만 있으면 피로는 확 풀어집니다.”
042) 365-3200 • 1688-1471 • 02-487-8256